

한국교회연합, 천환 목사 신임 대표회장 추대



한교연 제15회 총회가 4일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교연 신임 대표회장 천환 목사가 한교연 기를 흔들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교연 초대 대표회장을 역임한 김요셉 목사가 축하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4일 제15회 총회 개최

천 신임 대표 “한국교회 연합 마중물 될 것”

“대표 보수 연합기관 되도록 변화 이끌겠다”

총회 선언문 “주님 증거하는 복음선교 앞장”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4일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제15회 총회를 열고 천환 목사(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전 대표회장, 예장 고신 증경총회장)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다.

천 신임 대표회장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대표회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세계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 어느 때보

다 무겁다.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 믿는다”며 “밀알과 같이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 하려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몽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건국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 함께 밀알이 되어 주님 앞에서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갈망한다”며 “마음을

열고 오직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겠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연합을 위한 마중물로 쓰임받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천 신임 대표회장은 후보 소견서에서는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신(新) 자유주의 신학의 오염이 한국교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한교연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보수 연합기관으로 서도록 선두에서 변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또한 “세계적인 복음 기구들과 여계를 나란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교회와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연합하는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매우 중요한 본분”이라며 “회원 교단·단체가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해 더욱 친밀히 소통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한국교회에는 온갖 불건전한 신학 사조가 침투하고 있다”며 “복음적이고, 선교 지향적인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아카데미를 세워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동시에 선교 자원을 발굴, 양성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 밖에 한교연은 이날 김바울 목사(대한예수교토립교회연합), 장시환 목사(예장 올레넷), 이영한 장로(한국기독교인

합회)를 상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서기는 정광식 목사(예장 개혁)를 선임했다.

한편, 총회에선 감사 및 재정 보고와 공로·축하패 증정이 있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안을 비롯해 임원·감사와 상임·특별위원장 및 법인 대표·이사 인준 등의 사항은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교연은 이날 채택한 ‘제15회 총회 선언문’에서 “한국교회의 지난 140여 년의 부흥이 가져다준 외적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신앙의 질적 성숙을 간과했던 잘못을 깊이 회개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복음 선교에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사회 그늘진 곳의 이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길 것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모든 좌파적 이념 결사반대 △종교다원주의·혼합주의, 신(新) 자유주의 신학 배격 등을 선언했다.

한교연은 “교회의 하나 됨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임을 깨달아 교단의 크기, 신학적 배경을 초월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한 형제로서 주님이 분부하신 사명의 짐을 가까이 함께 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이날 한교연 초대 대표회장을 역임한 김요셉 목사가 축하하기도 했다. 그는 천환 신임 대표회장에 대해 “개혁주의 입장에서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라고 증거하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한교총 신임 대표회장에 김정석 기감 감독회장 추대

4일 100주년기념관서 열려…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의 건 부결돼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이하 한교총)이 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제9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대표회장에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김정석 목사가 추대됐다. 공동대표회장은 김동기 목사(예장백석 총회장)·홍사진 목사(예성 총회장)·정정인 목사(예장대신 총회장)가 선출됐다. 신임 사무총장은 김철웅 목사(예장통합)가 선임됐고, 법인 사무총장은 전 사무국장 정찬수 목사(기하성)가 연임됐다.

이는 제8-5차 상임회장회의와 제8-1차 임원회 결의에 따라 대표회장과 신임 공동대표회장 등 신임 임원단이 내정된 상태였고, 이날 정원 320명에 총 출석 243명(출석 187명 위임 56명)으로 성수된 한교총 정기총회에 상정돼 공식 결의됐다.

신임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는 취임사에서 “한국교회가 선교140주년을 맞이하면서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교단과 교회를 넘어 이 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책임이 한교총에 있고, 함께 더불어 힘을 모아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의 건에서 제4조 ‘사업’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두고 격론이 일었다. 개정안은 ‘사업 수행을 위해 산하에 별도 법인을 둘 수 있고, 운영방식은 운영세칙에 정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총대 일부는 법인 설립 시 예산 분배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결국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의 건의 가부를 묻는 표결이 이뤄졌고 총출석 220명(164명 위임 56명)에 108명 찬성으로 정족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위의 것이 부결됨에 따라 임원선임규정 제5조 ‘대표회장 후보군’ 내용의 정관 개정안도 역시 부결됐다. 현재 한교총은 회원 교단을 규모별로 가·나·다·라 군으로 나눠 대표회장과 공동대표회장직을 안배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가군은 2년·나군은 3년·다군과 라군은 4년 이내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했다.

또 기존 규정에서 △가군은 7천 교회 이상 교단 △나군은 2천5백 교회 이상 교단 △다군은 1천 교회 이상 교단 △라군은 1천 교회 이하 교단이었는데, 이중 △가군은 9천 교회 이상 교단 △나군은 3천 교회 이상 교단으로 각각 개정됐다. 상위 두 개 군의 기준을 상향했고, 다군과 라군은 그대로 두었다. 이에 따라 가군엔 예장 합동·통합·백석이, 나군엔 기감·기하·성기침기성이 속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과

같다. 다군엔 예장 고신·개혁·합신·대신·개혁개신·백석·대신과 예성이 속해 있다.

아울러 기존 규정에서는 대표회장의 자격을 ①회원 교단의 추천을 받은 현직 교단장이나 ②교단장을 지낸 자(1~4회기 공동대표회장 포함)로 명시했으나 ②를 삭제하고 현직 교단장으로부터 한정했다.

이 밖에 예장개혁종로(총회장 박만진 목사), 예장고려(총회장 허호성 목사), 예장합총(총회장 오희자 목사) 총회의 허입건이 통과돼 한교총은 39개 교단과 6만 4700여 개 교회를 아우르게 됐다.

앞서 개회예배에서 설교한 전임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예장합동)는 “연합은 승리의 열쇠이자 복음의 문을 여는 결정타”라며 “연합은 진리를 지키는 힘이며 한국교회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노형구 기자



김정석 신임 대표회장 ©노형구 기자



신구 임원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 영월 ↔ 삼척

126.9km 29.9km 70.3km

에타 통과(50분 예상)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